

古代日本語의 主格, 冠形格 形態에 대하여

— 韓國語와의 比較를 곁들여 —

金 公 七

目 次

I. 머리말	3. na (な)
II. 形態別 考察	4. tu (つ)
1. ga (が)	5. i (い)
2. no ₂ (の)	III. 比較 考察의 要約

I. 머리말

고대 일본어의 문법적 형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가장 오랜 命脈을 지니 오면서 主格과 冠形格에 兩用되는 의존형태소와, 이와 관련되면서도 오늘날에는 化石的으로 남아 있는 특별한 형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전자의 형태는 ga(が), no₂(の)이며, 후자의 형태는 na(な), tu(つ), i(い)이다.

이들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로는, 이들이 모두가 主格과 冠形格에 兩用되든지 다른 형태로 多用되는 특수한 형태라는 점(다만 na, tu는 冠形格으로만 化石化됨)과 비교적 다른 형태들보다는 古代性을 지니고 있고 또 한국어와의 관련성이 농후하여, 이들의 記述을 통하여 상호간의 고대의 문법 형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비교 연구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일본어 연구의 1급 자료인 萬葉集과 記紀歌謠를 중심으로 그것도 특히 古形이 보존되고 있는 萬葉集 卷5에서 예문과 이들 형태를 抽出하고 그 用字의 검토, 統辭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그 실상을 드러내려고 했으며, 한국어와의 비교는 音形과 用法에서 유사한 형식의 것을 향가 및 중세어 문헌에서 찾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하의 서술은, 각 형태별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 보고, 맨 나중에 그 가운데서 비교 고찰의 부분을 요약하는 순서로 할 것이다.

인용 예문은 특히 萬葉集의 경우 岩波古典文學大系本을 이용하였으며, 訓點別提式으로 漢字(萬葉假名)의 本文과 hiragana의 訓을 並記하였다. 그리고 資料名의 표시가 없이 숫자만 적은 것은 萬葉集의 歌番을 나타낸다.¹⁾

II. 形態別 考察

1. ga (が)

萬葉集 卷5에서 語例를 주워 보면,

1. 伊毛何見斯阿布知乃波那波知利奴倍斯和何那久那美多伊摩陀飛那久尔(姉が見し棟の花は散りぬべしわが泣く涙いまだ干なくに) (798)

大野山紀利多知和多流和何那宜久於伎蘇乃可是尔紀利多知和多流(大野山(ohonoyama)霧立ち渡るわが嘆く息嘯の風に霧立ちわたる) (799)

許等騰波奴紀尔茂安理等毛和何世古我多那禮乃美巨騰地尔意加米移母(言問はぬ木にもありともわが夫子が手馴れの御琴地に置かめやも) (812)

麻都良我多佐欲比賣能故何比例布利斯夜麻能名乃尾夜伎伎都都遠良武(松浦縣佐用比賣の子が領巾振りし山の名のみや聞きつつ居らむ) (868)

枳美可由伎氣那我久奈理奴奈良遲那流志滿乃己太知母可牟佐飛仁家里(君が行(yuki)け長くなりぬ奈良路なる山齋の木立も神さびにけり) (867)

2. 伊可尔安良武日能等伎尔可母許惠之良武比等能比斯乃倍和我麻久良可武(如何にあらむ日の時にかも聲知らむ人の膝の上わが枕かむ) (810)

夜麻能奈等伊賓都夏等可母佐用比賣何許能野麻能閉仁必例遠布利家牟(山の名と言ひ繼げとかも佐用比賣がこの山の上に領巾を振りけむ) (872)

1) 기타 出典의 略號는 다음과 같다.

訓民(訓民正音), 龍飛(龍飛御天歌), 釋譜(釋譜詳節), 月釋(月印釋譜), 楞嚴(楞嚴經諺解), 杜謠(杜詩諺解), 記歌謠(古事記歌謠), 紀歌謠(日本書紀歌謠)

家尔阿利弓波波何刀利美婆奈具佐牟流許許呂波阿良麻之斯奈婆斯農等母(家に在りて母がとり見
ば慰むる心はあらまし死なば死ぬとも)(859)

一世尔波二遍美延農知知波波衰意伎弓夜奈何久阿我和加禮南(一世には二遍(hutatabi)見えぬ父
母を置きてや長く吾が別れなむ)(891)

3. a. 伊毛我己許呂乃(妹が心の)(796)
和我霸能(わが家の)(816)
伊母我陞迹(妹が家に)(844)
阿我農斯能(吾が主の)(882)
安我古(吾が兒)(904)
- b. 和何則能尔(わが園に)(822)
和何夜度能(わが宿の)(826)
奈何名(汝が名)(800)
汗米何波奈(梅が花)(837)

1. 의 何, 我, 可는 連体修飾節 中の 主語로 쓰인 경우이고, 2. 何, 我는 條件文 또는 主文
의 主語로 쓰인 경우이며, 3의 何, 我는 体言과 体言 사이에서 先行 体言의 連体格으로 쓰인 예
이다.

그런데, 여기 쓰인 用字 何, 我 이외에도 連体格에 쓰인 것으로는 河(伊母河毛 ‘妹が裳’(855,
西本願寺本), 吾世古河屋戶乃 ‘わが背子が屋戶の’(4259), 賀(和賀勢故邇 ‘わが背子に’(3975))
加(和加勢故波 ‘わが背子は’(3990, 西本願寺本)) 등이 보인다. 主格에 쓰인 것도 이와 거의
마찬가지다.

우선, 이들 用字의 上古音/中古音의 推定音을 살펴 보면, (Karlgren 에 의한다.²⁾ 이하 동)
河 g'â / râ, 何 g'â / râ, 我 ngâ / ngâ, 加 ka / ka, 賀 g'â / râ 董同龢의 上古
音³⁾은 河 râ, 何, â, 我 ngâ, 加 ka, 賀 râ이다.

萬葉集 통틀어 여기에 많이 사용된 것은 我, 何, 賀로서 加의 예는 적다. 이들은 현대음으로는
ka 계열(河, 何, 加)과 ga 계열(我, 賀)로 나눌 수 있다. 한국 한자음으로는 ka 계열(加)과
ha 계열(賀, 河, 何), a 계열(我)이다. 再構音으로 볼 때는 한국어의 ha 계열의 用字(賀,
河, 何)는 그 음가가 일치한다.(喉音 全濁)

따라서, 이들의 당시의 음가는 유성의 fricative 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이는 중세 한국어에
서 모음(및 ㄹ)과 모음 사이에 介在하는 ㅎ중성(관형격은 ㅎ)과 상응되는 것이며, fricative
가 사라진 ‘我’는 중세 한국어의 관형격 조사 ‘이’(형태적으로는 ‘이’에도)에 상응하는 것이

2) Karlgren, B., *Grammata Serica*, Paragon Book Gellery Ltd., 1940.

3) 慶谷壽信編, 董同龢「上古音韻表稿」索引, 文海出版社有限公司, 1978.7.

라 할 수 있다.(龍歌 43의 ‘놀이’의 分綴 표기도 이와 연관된다.)

일본어의 경우, 보다 후일에 ka/ga의 음운적 分化가 생김으로써 이들은 ga로 흡수되었고, 한국어의 경우 물론 음운적 分化가 없었기 때문에 음운의식상 대표음의 ka로 흡수될 수 없어 인접 자음 [h, ’]로 分化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당시의 河, 何, 我, 賀는 助詞로서의 형태를 완전히 확립했다기 보다는 先行의 名詞 末音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흔히 보이는 격조사로서의 분류는 편의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 조사가 格의 未分化된 상태에서 主格과 冠形格에 쓰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未分化가 한국어에서는 |가 主格과 冠形格으로, 익가 冠形格과 主格으로 쓰인 예가 있다.

• |가 主格으로 쓰인 예

부테니르샤티(釋譜 23-3)

海東六龍이 느르샤(龍飛 1)

식미기픈므른(龍飛 2)

우리 始祖 1慶興에사르샤(龍飛 3)

• |가 冠形格으로 쓰인 예

내 ‘我’ < 主格 去聲
冠形格 平聲

네 ‘汝’ < 主格 上聲
冠形格 平聲

제 ‘其’ < 主格 上聲
冠形格 平聲

뉘 ‘誰’ < 主格 去聲
冠形格 上聲

長者| 썩리(釋譜 24:36)

• 익(의)가 主格으로 쓰인 예

내익드리운 손(楞嚴 2:19)

내의衰老호몬(杜諺 22:27)

내의蹉跎호몬스물(杜諺 21:23)

• 익가 冠形格으로 쓰인 예

소닉마리(龍歌 28)

도즈키알폴디나샤(龍歌 60)

고리中에위두홀거시니(月釋 1:14)

이 경우는 語末母音 i가 탈락한 경우인데, 그러한 예는 많다. (아기-아리, 아비-아빅) 이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위에서, 이가 主格으로 쓰인 예문에서, 1) ‘의’는 ‘이’의 交替形(흔히는 先行母音의 陽性/陰性에 따른다)이다. 2) 마지막 예의 ‘내의’에 있어서는 이를 冠形節의 主語로 보기보다는 後行 2句의 冠形語로 보는 게 좋다는 의견⁴⁾이 있듯이, 이러한 형태가 直後の 用言의 主語로 볼 것인가 隔句의 体言의 冠形語로 볼 것인가는 일단 덮어 두고, 그와 유사한 統辭 관계가 한국어에서나 일본어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시 유의할 일이다.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하고는 음운의 分化가 다른 방향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은 의/의 교체는 안 보인다. 그런데, ‘의’의 형태가 주로 子音形에 연결이 된다는 것, 語末母音 ‘이’가 先行하는 경우, 그것을 탈락시키고, 자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주목된다. 따라서 ‘의’에 있어서의 ‘이’에 先行한 ‘으’는 語源的으로 調整母音이 아니었느냐는 推論⁵⁾이 있는데, 한편 일본어 동사의 未然形 a(ㄱㅂ)가 그러듯이, 후세의 ‘가’는 조사로서 채 확립하기 이전에 先行 体言의 末音과 後行 体言 또는 用言 사이를 잇는 連結母音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특히 前出의 예 3. a. b와 같이 有屬 관계에 있는 체언과 체언 사이의 경우는 接腰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分節할 수 없는 한자로서 先行語의 末音의 延音を 표기한 탓이다. 한국어의 한자어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先行 한자의 有聲 終聲과 같은 계열의 無聲 자음이 표기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長子音의 停止音으로 해석된다. 다만 表記字가 全清이어서 음성 실현은 다르다.

乃내終중 ㄱ소리 (訓民)	兄ㄱ쁘디 (龍歌 8)
君군ㄷ字중 (訓民)	몇間ㄷ지빅 (龍歌 110)
늬ئم를 (龍歌 91)	(모음과 響性자음 (r, m, n) 앞에서 Δ)
侵침ㅂ字중 (訓民)	사롭쁘디 (龍歌 15)
蚪蚪ㅃ字중 (訓民)	
那낭ㅇ字중 (訓民)	先考ㅇ쁜 (龍歌 12)
(Δ이 쓰인 예, 世子Δ位 (龍歌 101), 後Δ날 (龍歌 26))	

한자어의 경우 終聲의 발음을 原音에 가깝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적인 표기가 필요했고 가능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先後의 2語를 밀착시키는 이러한 間音의 본질은 先行語의 1時 停止이며, 後行語의 強化에 glottal의 stop 아니면 fricative한 強勢가 삽입된 것이다. 이는 插入이라기 보다는 冠形格의 調音 그대로의 延音으로 先行語末에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위와 같은 同一調音 계열의 글자를 添記한 것으로 보인다. 先行語의 延音의 일시 정지가 아닌 바엔 視覺的으로 중간 경계에 介入하는 字를 添記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그것이 先行語末에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역시 視覺的으로 先行語의 終聲의 자리에 (終聲이 비어 있는 경우는 並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는 그럴 수 없어서 한자 뒤에 적

4) 許雄, 우리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1975.4. p.356.

5) 許雄, ibid., 1975. p.355.

혀 있어 여기서 마치 間音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음운적으로 동일한 이들의 冠形格促音은 표기상으로는 冠形語末音의 無聲 또는 有聲의 여부에 따라 역시 fricative 의 s, Δ으로 구분되다가 나중에 s으로 통일되어 갔다.

음성상으로는 先行語의 延音은 앞서 말한 대로 glottal 의 stop ‘ㄱ’과 fricative ‘h’ 일 것이다. 후자는 복합어에서 ㅎ接腰音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나, 이는 主成分의 主語, 目的語, 副詞語 등의 句구실 쪽을 맡고, 주로 진자가 語와 語의 복합의 방면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前出의 3. a. b. 특히 3. b의 경우, 이상과 같은 이치의, 先行語의 fricative 한 延音이면서 後行語와의 융합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연관짓는 점은 마찬가지로 본다.

이들의 음성 환경이 일본어 음절 구조가 그러듯이 先行語末母音의 경우 주로 ‘ㅇ’ (ㅇ : ㅎ : ㅇ 全清 : 次清 : 不清不濁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 유성의 ㅇ 운미에 대한 무성의 ㅇ 표기)이 쓰인 데 대해 일본어에서는 先行語末母音 조음 그대로 fricative 하게 ɾ~h 頭子音 한 자가 쓰인 것은 그만큼 先行語에 그러한 음이 후속한 것을 뜻한다. 한국어의 경우, 모음 다음에는 h 아니면, ㅇ이 나타남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이상의 서술을 요약하면, 후세에 ga 로 고정된 당시의 河, 何, 賀, 我의 형태상의 특징은 主格, 冠形格, 冠形格促音에 共用된 것이며 거기에는 한국어에서 主格으로 쓰인 의조사, 그리고 h 종성, h 접음음의 未分化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前後의 統辭 관계는 萬葉集 卷5에서 주워 보면,

体言 - 何 - 用言 | 和何那久 (798) (前出)

(何는 향가의 獻花歌의 岩乎过希, 執音乎手 의 ‘乎’와 같은 형태이다. 再構音도 ‘乎’와 ‘何’는 거의 同音이다.)

体言 - 我 - 用言 | 和我麻久良可武 (810) (前出)

体言 - 何 - 体言 | 奈何名 (800) (前出)

体言 - 我 - 体言 | 安我古 (904) (前出)

用言(連体形) - 我 - 用言(名詞形) | 波波乎波奈例弓 由久我加奈之佐 (4338)

用言(連体形) - 河 - 用言(名詞形) | 淨川瀬見河明沙(清き川瀬を見るが清(saya)けき) (1737)

특수하게 用言+助動詞(連体形) - 我 - 助動詞(語幹)의 경우도 있다.

將見我其等毛(見けむが如も) (1807)

이 마지막 예는 ‘봄과 같이’로서 형태 및 통사 관계가 일치하는 것인데, 其等の 형태 go₂to₂가 마타다(龍歌 79), 큰하다(龍歌 6)와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세어의 共同格에 ‘과’와 ‘와’의 교체형이 있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no₂ (㉔)

앞의 ga 의 경우처럼 主格과 連体格으로 쓰이는 형태이다. 이제 萬葉集 卷5에서 語例를 주

위 보면,

1. 阿麻久毛能牟迦夫周伎波美多尔具久能佐和多流伎波美企許斯遠周久尔能麻保良叙(天雲の向伏す極み谷蟻のさ渡る極み聞し食す國のまほらぞ) (800)

烏梅能波奈伊麻佐加利奈利毛毛等利能己惠能古保志枳波流岐多良斯(梅の花今盛りなり百鳥の聲の戀しき春來たるらし) (834)

波流能努尔紀理多知和多利布流由岐得比得能美流麻提烏梅能波奈知流(春の野に霧立ち渡り降る雪と人の見るまで梅の花散る) (839)

宇梅能波奈乎理加射之都都毛呂比登能阿蘇夫遠美禮婆彌夜古之叙毛布(梅の花折り挿頭しつ諸人の遊ぶを見れば都しぞ思ふ) (843)

宇見比須能麻知迦弓尔勢斯宇米我波奈知良須阿利許曾意母布故我多米(鶯の待ちかてにせし梅が花散らずありこそ思ふ子が爲) (845)

比等末奈能美良武麻都良能多麻志末乎美受弓夜和禮波故飛都都遠良武(人皆の見らむ松浦の玉島を見ずてやわれは戀ひつつ居らむ) (862)

2. 得之能波尔波流能伎多良婆可久斯己曾烏梅乎加斯之弓多努志久能麻米(毎年(tosinoha)に春の來らば斯くしこそ梅を挿頭して楽しく飲まめ) (833)

麻都良可波多麻斯麻能有良尔和可都流伊毛良遠見良牟比等能等母斯佐(松浦川玉島の浦に若鮎釣る妹らを見らむ人の美しさ) (863)

多良志比賣可尾能美許等能奈都良須等美多多志世利斯伊志遠多禮美吉(帶日賣神の命の魚釣らずと御立たしせり石を誰見き) (869)

迦貝漏伎可美尔伊都乃麻加斯毛乃布利家武久禮奈爲能意母提乃宇倍尔伊豆久由可斯和何伎多利斯(か黒き髪に何時の間か霜の降りけむ紅の面の上に何處ゆか皺が來りし) (804)

横風乃尔布敷可尔覆來禮婆(横風(yokosimakaze)のにふぶかに覆(oho)ひ來(kita)れば) (904)

3. 余能奈加波 (世の中は) (793)
 伊毛乃美許等能阿禮乎婆母 (妹の命の我をばも) (794)
 日月能斯多波 (月日の下は) (800)
 美奈乃和多 (蜷の腸) (800)
 伊都乃麻 (何時の間) (804)
 麻周羅遠乃遠刀古 (大夫の男子) (804)
 余能許等 (世の事) (805)
 多都能馬 (龍の馬) (806)
 奈良乃美夜古 (奈良の都) (806)
 志岐多閑乃麻久良 (數栲の枕) (809)
 比等能比射乃倍 (人の膝の上) (810)
 可尾能彌許等 (神の命) (813)
 烏梅能波奈 (梅の花) (825)
 波流能努 (春の野) (837)
 佐加豆岐能倍 (酒杯の上) (840)
 和企弊能曾能 (吾家の園) (841)
 干遇比須能於登 (鶯の聲) (841)
 由吉能伊呂 (雪の色) (850)
 許能可波加美 (この川上) (854)
 久禮奈爲能母能須蘇 (紅の裳の裾) (861)
 等己與能久尔能阿麻越等賣 (常世の國の天娘女) (865)
 都久紫能君仁 (筑紫の國) (866)
 夜麻能名 (山の名) (868)
 許能多氣仁 (この嶽に) (873)
 宇奈波良能意吉 (海原の沖) (874)

1. 의 ‘能’ 는 連體修飾節의 主語로 쓰인 경우이고, 2. 의 ‘能, 乃’ 는 條件文, 並列文 또
 는 副詞節 그리고 主文의 主語로 쓰인 경우이다. 3. 의 ‘能, 乃’ 는 連體格에 쓰인 예이다.

1. 의 경우에도 ‘乃’ 가 쓰인 예는 다른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Karlgren 에 의하면, 能의 上古音/中古音은 *nəng/nəng, 乃의 그것은 *nəg/nəi 이다.

중세 한국어의 특수조사²⁾의 主題格의 는/는 (은/은)은 異形態를 지나나, 일본어의 경우 얼핏
 보기에는 형태 교체의 조건이 없는 듯 보인다.

동사, 형용사의 冠形形 는/는 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우선, 형태적인 유사뿐만 아니
 라 同形이 主題格과 冠形形의 구실에 걸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다. 한국어의 는가

일본어의 o₂(ㄹ)와 대응하는 예는 많고 (前出의 ㄹ나: go₂to₂), 또 당시의 일본어 음절 구조가 말음에 -ng이 존재하도록 하지 않았기에 ‘能’의 韻尾도 문제되지 않는다.

중세 문헌에서 ‘ㄹ’이 쓰인 예문으로는,

알피논어드본길헤 (龍歌 30)

히처섬나눈싸히라 (月釋 1:24)

다만, 前出의 3. 의 예와 같은 体言 - na - 体言과 같은 예는 없는 듯싶다. 향가에서는 願往生歌의 ‘無量壽佛前乃惱叱古音’가 보인다.

그럼, ‘能’와 대개 비슷한 기능을 가진 河/我(여기서 편의상 ga의 형태로 해 둔다)와 이 能(乃)의 형태의 기능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韻律上으로 前者와 後者는 흐름이 밀착하고 있는 데는 마찬가지로, 후자는 흐름의 멈춤이 있는 경향이 있다. 또 전자는 개인적이며 보다 心情的인 語 따라서 有屬的이며, 후자는 事物的이며 對象的인 것 따라서 同格的인 것에 後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대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 代名詞에서 (3人稱은 예외)
 - 人稱代名詞 安我古 (我が兒) (904)
 - 曾賀波 (其が葉) (記歌謠 101)
 - 指示代名詞・數詞
 - 許能登埜 (この鳥) (記歌謠 2)
 - 曾能波奈 (其の花) (記歌謠 101)
 - 千重乃一隔母 (千重の一重も) (509)
- 對人關係語에서
 - 가까운 사이(有屬) 伊母我陸邇 (妹が家に) (844)
 - 격식을 차리는 사이(同格) 可尾能彌許登 (神の命) (813)
- 固有名詞에서
 - 地名(ga/no₂ 양쪽) 野嶋我崎(野島が崎) (230 一云)
 - 野嶋之崎(野島の崎) (230)
 - 奈良乃美夜古(奈良の都) (806)
 - 人名 柿本朝臣人磨妻(柿本朝臣人磨のめ) (140 右)
 - 藤原のなかちこ (4216 左)
- 自然物
 - 有屬的인 것. 梅我枝(梅が枝) (1436)
 - 同格・連格的인 것. (ga/no₂ 양쪽)

汗米何波奈(梅が花) (837)

島梅能波奈(梅の花) (825)

필자의 推論은 ‘何, 我’는 原初的으로 개인의 소유 관념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아니었다 싶고,⁶⁾ ‘能, 乃’는 客体的인 指定관념을 나타내는 接尾辭가 아니었다 싶다. 위에서 예증되는 외에 전자는 한국어의 h 종성과 후자는 한국어의 현재서술의 형태 및 일본어의 단정서술의 na(ri) 와 연관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前後의 統辭 관계는

体言 - 能 - 体言 余能奈可(793)(前出)

体言 - 乃 - 体言 伊母乃美許等(794)(前出)

体言 - 能 - 用言 波流能伎多良婆(833)(前出)

体言 - 乃 - 用言 斯毛乃布利家武(804)(前出)

体言 - 能 - 用言(名詞形) 比等能等母斯佐(863)

副詞/体言 - 能 - 助動詞(語幹) 加久能碁等(記歌謠 97)

迦微能碁登(記歌謠 45)

특이한 것은 我/河에서처럼 用言(連体形)을 先行시키는 일이 없다. 대신 連用形을 先行시킨다.

用言(連用形) - 能/乃 - 体言/用言 故非之久能於保加流和禮波(4475)

佐吉乃盛波乎思吉物奈利(3904)

이러한 용례도 有屬/同格의 상대적 용법의 방증이 되지 않을까 한다.

3. na (な)

‘の’의 교체형 ‘な’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우선 例語를 抽出하면,

1. 眼 manako (日本書紀 卷1)

掌中 tanaura (日本書紀 卷1 6段, 卷19 欽明紀)

掌 tanaura (日本書紀 卷2, 卷13 允恭紀)

이들은 모두 訓讀字이지만, 箋注本倭名類聚抄 卷2에 ‘眼 万奈古目之子也’의 注記에서 확인된다. 역시 類聚抄 卷2에 ‘掌 太那古古路’가 보이지만, 前出한 允恭紀의 ‘掌’의 訓은 ‘多奈字良’로 注記되고 있으며, 日本紀私記云手掌太奈曾古의 注記도 있다.

6) 金公七, 아이누語 名詞의 人稱形에 對하여, 濟大學報 第19輯, 1979.2. 참조

김공칠, 원시 한·일어의 연구 — 공통기어 설정을 위한 — 한글 제 168호, 1980.6. 참조

眼交 麻奈迦比(802)

柳 野儺擬(紀歌謠 83)

2. 瓊響瓊瓊에 대한 ‘瓊響(nunato)も瓊瓊(moyura)に’의 訓讀이 있는데, 이어서 다음과 같은 音 kana의 注記가 있다.

瓊瓊乎此云奴儺等母母由羅爾(日本書紀 卷1 第7段)

이는 瓊(nu)나音(to) ‘玉の音’의 뜻이다.

3. 邇儺度能于之衰 ‘水門の潮’(日本書紀 卷26 齊明紀)

이 na의 형태는 전술한 바 있는 連體格의 no₂ 하고는 同義的 交替語의 관계에 있다. 同義的 交替語의 경우 음운상의 어떤 조건에 말미암을 異形態일 것이다.

여기의 na의 統辭 관계를 보면, 모두 體言+na+體言의 관계에 있다. 그것도 거의 化石化한 語들이다. 그리고 na에 先行하는 음성 환경은 1. 은 a末音 뒤에 2. 는 u末音 뒤에 3. 은 i₁末音 뒤에 있다. 모음조화하고는 중립적인 3. 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後母音(이른바 陽性母音) 뒤의 경우이다. 따라서, na/nə의 교체는 원래 음운적 조건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nə의 주된 형태적 구실은 連體格인데 그것의 주된 통사 관계 곧 體言+no₂+體言의 관계에서 가장 密着的이고 거의 固定되다시피하여 古形을 그대로 보존한 듯 보이는 yo₂no₂naka ‘世の中’, ko₂no₂ ‘此の’의 형태를 보면, 前母音(이른바 陽性母音) 뒤에서 구실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차차 모음조화의 弱化和 na(nə)/nə의 음운적 기능이 접근됨으로써 결국 nə가 전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래는 음운적 조건에 의한 엄연한 구별이 있어 그분담이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tu(つ)

역시 連體格의 化石化로 볼 수 있는 ‘つ’의 語例를 주워 보기로 한다.

1. 阿麻豆可未(天つ神)(續日本紀大平15年)

天神(amatukami)(904)(古事記神武)의 訓讀字도 있다.

安麻都美豆(天つ水)(4122)

久尔都美可未(國つ御神)(2930)

和多都美(海神)(3627)

爾波都登理(庭つ鳥)(記歌謠 2)

佐怒都登理(さ野つ鳥)(記歌謠 2)

上國此云羽播豆矩儺(日本書紀 卷2 10段)

賀美都勢(上つ瀬)(記歌謠 90)

斯毛都勢(下つ瀬)(記歌謠 90)

本都延(上(ho)つ枝)(記歌謠 100)

那加都延(中つ枝)(記歌謠 100)

斯毛都延(下つ枝)(記歌謠 100)

- 於伎都奈美 (沖つ波) (3627)
- 於伎都之良奈美 (沖つ白波) (3629)
- 淤岐都登理 (沖つ鳥) (記歌謠 4)
- 於伎都之良多麻 (沖つ白珠) (3628)
- 幣都那美 (邊つ波 記歌謠 4)
- 邊津毛波 (邊つ藻葉) (祝詞 平野祭)
- 部都藻 (邊つ藻) (1206)
- 武躬都鳥 (向つ峰) (紀歌謠 108)

2. 乎登都日 (1昨日) (3924)

- 先年 (sakitutosi)(783)
- 前日 (satituhi)(日本書紀 卷2)

위 2例는 訓讀이지만, 후세 문헌(源氏物語若紫)에서는 그것이 i音便化한 saitukoro ‘先つ頃’가 보인다. 기타 문헌에서 春つ方(和泉式部集 2), 夕(yuhu)つ方(源氏物語 胡蝶)를 찾아 볼 수 있다.

3. 志豆延 (下つ枝) (記歌謠 100)

- 豫呂豆余 (万世) (紀歌謠 102)
- 與呂豆余 (萬代) (4003)
- 與呂頭多妣 (萬度) (4408)

위의 예들에서 보이듯이 이 형태에 쓰인 用字는 都, 津, 豆, 頭이다. 都와 津는 줄곧 清音字로 쓰이었다. 豆는 보다 이른 시기(推古朝)에는 그 濁音에 쓰이었으나, 이후 清濁에 兩用될 경향이 있다. 頭도 보다 앞서는(金石文) 濁音에 쓰이었으나, 日本書紀에서는 清濁에 兩用되었고 萬葉集에는 濁音에 쓰이었다. 따라서, 3.의 頭와 豆는 濁音으로 쓰인 예가 된다.

Karlgren의 上古音/中古音의 再構音은 都 to/tuo, 津 tsiën/tsiën, 豆, 頭는 d'u/d'au로서 清濁의 구별이 되어 있다. 하나의 형태에 이러한 혼용이 있는 것은 음운적 示差的인 변별성이 있다기보다는 음성적 실현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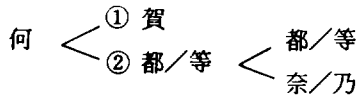
한국어의 경우 이들 用字例가 보이는 것은 향가에서 怨歌의 ‘世理都之叱’의 예가 있는데, 이는 体言 사이의 促音으로 쓰인 것이다.

이제 連体格의 何의 형태 그리고 能/乃, 그리고 여기의 都/頭의 관계, 그리고 한국어의 h종성, 사잇소리(ㅎ, ㅅ, ㄷ), 관형형어미 ㄴ/는 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계짓고자 한다.

이들의 공통적인 통사 관계는 원칙적으로 体言+()+体言의 有屬的인 구조다. 단 일본어의 경우는 用言의 連体形이, 한국어의 경우는 用言의 語幹이 前項이 되기도 하나,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구조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 형태에 後行하는 後項의 語頭音이 반드시 이들 형태의 영향을 받아 變音이 된다는 사실이다. 氣音化(ㅎ接腰音의 경우), 硬音化(사잇소리의 경우), 有聲音化(ㄴ/는 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通時的인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

까?



첫 단계는 A+B에서 前項을 강조하는 接腰音이 介在(前項 終聲의 延音)하는 단계, 다음은 그것의 語頭子音(喉音性)이 약해지고 鼻音化하는 것(賀)과 이와 반대로 語頭子音이 뚜렷한 곧 前項語末音의 促音化이다. 일본어의 음절 구조가 그러한 終聲的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都/等로 받았다. 都는 董同龢의 再構上古音에 의하면 tãg, 等は tãg 이다. 전자는 萬葉假名로서는 to₁, 후자는 to₂ 로 이어진다. 이는 곧 A+B에서 그 관계가 유속적이면 都, 並列적이면 等으로 잇는 기능으로 分化한 것이다.

都의 형태가 원래 ta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1) 董同龢의 再構音, 2) 상대적인 賀와의 同母音의 並行, 3) 그리고, 殘存語 ‘木(ku)だ物’, ‘毛だ物’에서 추정된다.

이 ta의 형태와 同義的交替 바뀌 말해서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가 ‘奈’의 형태이다. ta와 na와는 同器官의 교체음이다. na로 교체된 조건은 順行同화와 異化이다.

例語 *matakō > manako, *matakapi > manukapi, *nutato > nunato, *yanagi > yanagi는 전자의 예이고, *tataura > tanaura, *tatasoko > tanasoko 등은 후자의 예이다.

이 奈의 형태가 역시 同義的交替語로 음운적 조건에 의해서 奈/乃로 바뀐다고 한 것은 전술한 바이다.

이렇게 해서, 原初적으로 하나의 형태였던 것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경위로 해서 고대에는 서로 비슷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로서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된 것을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5. i (い)

형태적으로 한국어의 i 主格助詞와 비슷한 것인데, 우선 그 例語를 주워 보기로 한다.

萬葉集 總索引에서 모두 뽑아 보면,

1. 吾背子之跡履求追去者木乃關守伊將留鴨(わが背子が跡ふみ求め追ひ行かば紀伊の關守い留めてむかも) (545)

後有菟原壯士伊仰天叫於良妣毘地(後れたる菟原壯士(unahiwotoko)い天(ame)仰ぎ叫びおらひ足ずりし) (1809)

在千方在名草目而行目友家有妹伊將鬱悒(在千瀉(aritigata)あり慰めて行かめども家なる妹(imo)いおほぼし) (3161)

筑波禰乃乎弓毛許能母尔毛利敏須惠波播已毛禮杼母多麻曾阿比尔家留(筑波嶺の彼面此面に守部

据糸母い守れども魂そ逢ひにける) (3393)

2. 浦觸而可例西袖叫又卷者過西戀以亂今可聞。(うらぶれて離れに袖もまた纏(ma)かば過ぎに戀い亂れ來(ko)むかも) (2927)

3. 向岳之若楓木下枝取花待伊間尔嘆鶴鴨(向つ岡(wo)の若楓(wakakatura)の木下枝(sidue)取り花待つ間(ma)に嘆きつるかも) (1359)

玉緒乃不絶射妹跡結而石事者不果(玉の緒の絶えじい妹と結びてし言(koto)は果さず) (481)

總索引에서 1. 은 格助詞, 2. 는 格助詞로 하되 異見이 있는 것으로 했으며, 3. 은 間投助詞로 분류하고 있다. 岩波日本古典文學大系萬葉集에서는 1, 2, 3의 형태를 모두 間投助詞로 하고, 한국어의 主格의 i助詞와 관련한 것으로 註를 달고 있다.

이들 형태에 쓰인 用字 已, 伊, 以, 射 가운데 前 3字는 音讀字고, 後 1字는 訓讀字이다. 이들의 上古音/中古音を 보게 되면, 已 $ziæg/i$, 伊 $iɛr/i$, 以 $ziæg/i$, 射가 iru ‘射’의 訓에서 온 것이고, 또 見之云射乎故曰伊夜岡(播磨風土記託賀郡)의 記述에서 射=伊이 대응되는 점에서 伊와 同類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同音의 형태소라는 증거는 못된다. 더우기 射의 上古音/中古音이 $d'iǎg/dzja$ 인 점에서 音讀字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형태가 과연 동일한 문법적인 형태소의 同類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들 再構 中古音에서 i音으로 일치하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또는 萬葉集의 後代性的 탓인지도 모른다.) 물론 오래 전부터 i형태가 있어서 그것이 당시에까지 그대로 계승되었기에 당시에 모두 i音化된 이들 用字를 써서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지만, 歌詞 및 用字의 傳承性を 고려할 때는 좀 어떨까 한다.

애초에 強調辭적인 성격을 띠었던 이들 형태가 主格, 連体格 등 문법적 形態素化는 일본어의 경우 前述한 바 있는 賀와 伊와의 分化가 철저하지 못하여 賀가 全擔하게 되고, 한국어의 경우, 익/이 의 分化가 있어 (그만큼 음운 분화가 철저했다) 主格과 冠形格이 共用되다가 확연히 分立된 것으로 보인다. (이/익 의 例文 前出)

앞서의 1. 2. 3. 의 예문 가운데 1. 과 2는 主格의 예이고, 3. 은 連体格의 예이다. 이 외에도 岩波古典文學大系萬葉集에서의

乾坤乃神乎禱而吾戀公以必不相在目八方(天地の神を祈りてわが戀ふる君いかならず逢はざらめやも) (3287)

중의 ‘以’는 그 草書체가 似와 가깝고 또 以와 似字는 한자로서는 통용되기 때문에 -ni 의 訓讀字로 읽고 있는데, 그렇다면 連用格으로 씌어진 예가 된다.

그런데, 似의 上古/中古音은 $dziæg/zi$ 로서 以와 同類(같은 形聲字)이면서, 보다 語頭障

害的인 음이다.

이상의 主格, 連体格, 連用格(副詞格) 외에도 目的格 내지 器具格으로 쓰인 예가 記紀歌謠 가운데서 보이며, 紀歌謠에는 主格으로 쓰인 예, 萬葉集에 特殊助詞를 後行시킨 예들도 보인다.

예시하면,

強意의 i, 目的格/器具格

彌都彌都志俱梅能固遲餓勾驚都都伊異志都都伊毛智干智弓之夜葬務(みつみつし來目の子らが頭
推い石推いもち撃ちて止まむ)(紀歌謠 9)

美都美都斯久米能古良賀久夫都都伊伊是都都伊母知伊麻宇多婆余良斯(みつみつし久米の子らが頭
推い石推いもち今撃たば良らし)(記歌謠 10)

強意 i 主格

阿符美能野愷那能倭俱吾伊輔曳符枳能朋樓(近江のや毛野の若子い笛吹き上る)(紀歌謠 98)

主格·特殊助詞 後行

不聽雖謂話禮話禮常詔許曾志斐伊波奏強話登言(否(ina)と言へど語れ語れと詔(no)らせこそ
志斐いは奏(mawo)せ強語(sihigatari)と詔(no)る)(237)

이제, 이들을 그 통사 관계와 형태에 따라 정리하면,

体言 - 已 - 用言	波播已毛禮杼母(3393)
体言 - 伊 - 用言	關守伊將留鴨(545)
	壯士伊仰天(1809)
	妹伊將麴悒(3161)
	倭俱吾伊(輔曳)符枳(紀歌謠 987)
体言 - 以 - 用言	公以必不相在目八方(3287)
体言 - 伊 - 助詞 - 用言	志斐伊波奏(237)
用言 - 以 - 用言	戀以亂今可聞(2927)
用言 - 伊 - 用言	都都伊毛智(記紀歌謠)
用言 - 伊 - 体言	花待伊間尔(1359)
用言 - 射 - 体言	不絕射妹跡(481)

위에서 주목되는 것은 i系와 zi系가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i助詞의 유래도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伊'의 경우 用言의 連体形이 先行하여 마치 '伊'가 形式名詞한 듯한 語例가 보인다는 것이다.

關守伊(關を守る人), 花待伊(花を待つ人), 不亂伊(亂れない人), 頭頭伊(つつ物)

体言+伊의 경우도 地名+伊 와 같은 志斐伊는 ‘志斐の人’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zi系는 体言에 직결되어 主格을 나타내고 있다. ‘戀以’의 경우는 일단 ‘用言+似’로 했지만 이는 訓讀字이니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名詞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不絶射’의 경우는 ‘射’의 音讀 또는 訓讀의 문제가 있어 하나의 문제점이다. 訓讀의 경우는 射=伊이기 때문에 ‘絶えまい人’로 볼 수도 있다. 音讀의 경우 強勢로 풀이할 수 있다. 고대에는 원칙적으로 主格助詞의 介在 없이 ϕ 助詞로 나타내었기에 이에 대한 zi系의 介入은 強勢로 볼 수 있다.

그럼, ‘体言+伊’의 主格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앞의 語例 ‘한자어+伊’로 볼 수 있는 ‘壯士伊, 妹伊’ 외에 ‘固有語+伊’의 倭俱吾伊가 있는데, 전자에서처럼 한자어에서 ‘伊’형태가 노출하는 것은 한자어의 視覺性과 固定性을 배려한 결과로 이해되며, 후자는 그 해독 자체가 아직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거에 間投助詞의 i 또는 主格助詞의 i로 본 것은⁷⁾ 실은 그 연유가 zi系와 i系로 나눌 수 있으며, 前者는 強調辭, 후자는 形式名詞 그리고 i接尾辭의 露出形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사 관계로 볼 때 成分上 主格의 구실을 하는 것이 많아서 (解讀上の 문제가 있지만, 目的格으로 쓰인 예가 있다.) 그래서 主格助詞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는 文中에서 主格이나 目的格의 자리에 자유로 介在하여 先行語를 강조하는 면에서 間投助詞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이들 형태가 아직 문법적인 형태소로 확립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原初적으로 i형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일본어에 있어서의 名詞 형성의 접미사, 語根 後行의 強調의 i 등(aka + i) ake₂ ‘赤’)을 익히 보아 온 바로 이들과 기원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i형태가 整齊된 문장 구조에서의 主語 성분들의 자리에서 多用됨으로써 主格의 형태로써 위치를 굳힐 듯 하였으나 옛 전통을 잇는 法相宗의 宗派의 訓點으로서 그 자취를 남기고 말고는 a형태인 ga에게 그 문법적 기능을 넘기고 만 것이 아닐까?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이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기로 한다.

우선 향가에서 찾아 보면 慕竹旨郎歌에서 거론되는 다음 그 예는 그 用字의 검토에서

貞史 즈이 (梁柱東, 金完鎭⁸⁾)

心未 미스미 (梁柱東, 金完鎭)

미스미 (필자)

으로 볼 수 있어서 (史 sliæg/ʃi sæg, 木 miwəd/miweɪ, miwəd (再構音의 記述順은 Karlgren의 上古音/中古音, 董同龢의 上古音이다.) 貞史는 차라리 貞史年數로서 体言+体言으로 보고 있다. 그것의 사잇소리 介在形이 讚耆婆郎歌의 栢史叱枝次이다.

心未의 未는 韻鏡上 微韻으로서 후세의 한국 한자음에 mi로 반영되어 있어 i형태의 표기로

7) 岡倉由三郎, 主格を示す本來の辭, 帝國文學 第6卷 第2號, 1900.

8) 梁柱東, 古歌研究(訂補版), 博文書館, 1960. 9.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12.

볼 수 있다. 冠形格의 용례로는 讚者婆郎歌의 心未際叱盼, 原因格의 용례로 볼 수 있는 게 祭亡妹歌의 風未인데 이들이 모두 i 형태인 것은 先行 体言의 韻尾가 공통적으로 -m임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獻花歌의 不喻慚盼伊

安民歌의 民是, 於冬是

讚者婆郎歌의 沙是. 雪是

處容歌의 夜入伊, 脚鳥伊, 四是良羅, 吾下是如馬於隱

慧星歌의 人是, 浮去伊叱等邪

遇賊歌의 唯只伊吾音之叱恨隱

등에서 ‘伊, 是’가 散見되는데(是의 再構音은 diëg/zie), 이들 斷片的인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될하나, 是는 1) 主格에 쓰인 것과, 2) 指定詞로 쓰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伊는 거의 1) 形式名詞로 쓰인 것이고, 2) 主格助詞로 쓰인 것도 보인다. 다만 遇賊歌의 用例만은 아직 難解이다.

중세 문헌에서도 i 助詞가 다양하게 쓰인 예가 보인다.

시미 기픈 므른 마마래 아니그출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龍歌 2)

臣下 | 말 아니드러 正統에 有心홀씩 山의 草木이 軍馬 | 드뵈니이다. (龍歌 98)

자브리 업시 널굽 거르물 거르샤 (釋譜 6:17)

첫번째 예문은 主格, 두번째 것은 冠形格과 補格, 세번째 것은 形式名詞로 쓰인 예가 된다. 일본의 宣命에서도 ‘伊’의 小字의 用字로서 1) 主格에 쓰인 예가 많으나, 가끔 2) 與格 혹은 3) 形式名詞로 쓰인 것이 보인다.

1) 藤原朝臣麻呂等伊負圖龜一頭獻止(6 詔)

奈良麻呂古麻呂等伊逆黨乎伊射奈比率而(19 詔)

이외의 예로서

伊麻呂伊(28 詔) 國王伊(28 詔) 在人伊(29 詔)

仲麻呂伊(34 詔) 和氣伊(34 詔)

禪師等伊(41 詔) 朕德伊(42 詔)

2) 道鏡伊所賜天(35 詔)

3) 此乎持伊波稱乎致之捨伊波誘乎招都(45 詔)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고대에 있어서의 i(zi) 형태는 先行語를 指定 強調(~라는 이/것)하는 구실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에 連体形이 先行할 때는 그것을 名詞化하는 구실을 했고 体言이 先行할 때에는 그것을 강조하고 해서 문법적인 형태소의 구실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알아 본 ‘何, 奈, 都’ 등의 a의 형태와 i 형태의 차이는 간단히 말해서 A+B의 관계에서, A-a-B는 加算的(後屬的)인 것, A-i-B는 減算的(前屬的) (이들이 적절한 用語가 못될지 모르나 상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A+B가 有

屬 관계로 A에서 提起, B에서 결정되는 의미 구조이며, 후자에서는 이미 A에서 결정된 것을 B에서 보충, 정리하는 主述 관계이다. 물론, 전자에서도 主述 관계가 있으나, 그때는 主題의 提示(未知)와 그 判斷(完決)의 구조가 되어서 후자의 既知的 指定, 強調(判斷)에 대한 서술 정리라는 정반대의 구조가 된다.

이러한 a와 i의 상대적인 기능은 예컨대 동사의 활용형의 구실에서도 확인된다. a형태(未然形)에 이어지는 형태는, 加算的인 관계에서 主体的 決斷은 否定, 推定 등의 조동사에 맞기고 있으며, 그렇지 않고 접속의 助詞(ba)가 오는 경우도 그것은 條件의 提示요, 그 판단은 다음 文(節)에 미루는 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i형(連用形)에 이어지는 형태는 減算的 관계여서 中止의 ϕ 형태나, te助詞 그리고 過去, 完了 등의 서술적인 형태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動詞派生法에서 a는 外部派生이요, i는 內部派生이다.

Ⅲ. 比較 考察의 要約

1. 후세에 ga로서 固定한 ‘何(伊毛何……和何 798), 我(世古我 812), 河, 賀’의 형태는 당시 主格, 冠形格 내지 冠形格促音(伊母河毛 855, 和賀勢故述 3975, 和我霸能 816, 奈何名 800)에 共用된 것으로, 그것은 한국어에서의 主格, 冠形格的 ‘익’ 助詞(내히 드러운 손 ‘楞嚴 2:19’, 고리 中에 ‘月釋 1:14’) 그것에 h終聲, h接腰音, ㅇ促音의 未分化的 상태(岩乎过希 ‘獻花歌’, 내히 이러 ‘龍歌 2’, 안팎<안ㅎ타 ‘月釋 2:64’, 先考ㅇ쁜 ‘龍歌 12’, 하늘우짚 金尺 ‘龍歌 83’)의 그것들과 상응한다.

2. no₂ ‘能, 乃’가 主格으로 사용된 경우(波流野伎多良婆 862)는 한국어의 특수조사의 主題格 nen / nun 에 상응하고(알리는 어드본 길래, ‘龍歌 30’), 冠形格的 경우(余能奈可波 793)는 用言의 冠形形語尾 nen / nun (나는 싸히라 ‘月釋 1:24’)에 상응한다. 음운상으로도 乙類의 o₂가 한국어의 본래의 e(> a/ə)에 대응하는 예가 많다. 이것은 또한 冠形格的 no₂와 同義的 交替의 관계에 있는 다음의 na의 존재가 傍證이 되기도 한다.

3. na는 no₂와 마찬가지로 冠形格으로 쓰인 것이 化石的으로 남아 있다. nen / nun 하고는 平行的인 대응을 이루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음운적 조건에 의한 異形態였던 흔적을 보여 준다.

野雛擬(紀歌謠 83) / 余能奈可(793) 이외에 麻奈, 眼 na, 掌 na / 伊母乃, 斯毛乃, 迦微能, 波流能 등의 예가 보인다.

이 na/no₂와의 同器官的 交替音에 都 / 等 가 있는데 그 ‘都’가 다음의 <tu>의 형태다.

4. tu로 化石한 이 형태는 用字의 검토에서 원래 ta의 형태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A+B의 관계가 有屬的이면 都(安麻都美豆 4132), 並列的이면 等(也奈宜等 … 波奈等 826)

가 그 기능을 맡는 등 ta/to₂의 分化가 보인다. 전자는 한국어의 間音(ㄴ, ㅅ, ㄷ)이 고정된 형태에 대응한다. (世理都之叱 ‘怨歌’, 東海스마시 ‘龍歌 6’, 우칭龍 ‘龍歌 100’, 那ㄴ字)

並列의 흔적도 없지도 않아서 향가에 있어서의 共同格의 ‘如, 多’의 용례를 이와 관련지을 수 있다(君如臣多支民隱如 ‘安民歌’).

5. i는 이른 바 主格의 형태로서 그 用字 및 용례로 보아서 그 유래를 zi系와 i系로 나눌 수가 있다. 전자는 強調辭(波播已 3393, 戀以 2927), 후자는 主格(壯士伊 1809, 妹伊 3161) 외에 형식명사(花待伊 1359, 持伊波 ‘45詔’), 그것에 i接尾의 성격(異志都都伊 ‘紀歌謠 9’)을 띠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이미 향가에 있어서도 i 主格(貞史心未 ‘慕竹旨郎歌’), 冠形格(心未 ‘讚善婆郎歌’)의 용례가 보이고, 중세어에서는 형식명사(자브리업시 ‘釋譜 6:17’)로서 쓰인 예도 있다. 強調辭로서 쓰이는 것은 오늘날에도 흔한 일이다.

Summary

A Comparative Study of the Subjective, Adjective

— Cases between Old Japanese and Middle Korean —

Kim Kong-chil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larification of bound morphemes of Old Japanese *ga*, *no*₂, *na*, *tu*, and *i* in comparison with the counterparts of Korean.

This study shows that *ga*, *no*₂, and *i* are used as both subjectives and genitive adjectives; *na* and *tu* as genitive.

Old Japanese <ga> is an equivalent to (1) subjective and genitive forms of *i* (final/h/ + *vi*), (2) an infix /h/, and (3) a double consonant /ʔ/ in Korean.

*no*₂ is an equivalent to subjective markers *nɐn* and *nun* and adjective endings *nɐn* and *nun*, in Korean.

Old Japanese *na*, together with *no*₂(*na*), is a phon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

Old Japanese <tu>, one of phonemic replacements *ta/tə* which are originally related with *na/nə* alternation, is an equivalent to an epenthesis /t/ in Korean.

Old Japanese *i* is an equivalent to a subjective marker, a formal noun, and an emphasis marker in Korean.